

6월 모평 '국·수·영' 변별력 충분... '킬러문항'도 없었다

국어,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나와
연계율 51.1%... 난도 낮은 건 아나
수학도 전년비 쉬워... 연계율 50.0%
문제 배열 바뀌며 체감 난이도 높아
영어, 다양한 유형서 골고루 출제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으로 4일 전국 2114개 고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대체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한편, 변별력은 충분했다고 분석됐다. 정부 방침대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워
1교시 국어 영역은 2024년도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한편,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EBS 수능 교사단은 국어 영역의 출제경향에 대해 EBS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2교시 수학 시험지를 받고 있다. /뉴스1

S연계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EBS 수능 연계교재에 다뤘던 제제나 작품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날 밝힌 EBS와 국어영역 연계율은 51.1%다.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

은 국어영역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교사단 설명이다. 교사단은 "EBS 수능 연계교재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설계해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 높게 출제됐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도 지난해 수능 본시험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수능 국어는 만점자 표준점수가 150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어려웠던 시험으로 손꼽히면서 이번 시험도 난도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입시전문가 중론이다.

◆수학, 다양한 난이도 고루 출제... 영어, 작년 수능 출제 경향 유지

교사단은 수학 영역도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교사단은 이날 "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쉬운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변별력에 따른 문항 배치 면에서 작년 수능과 매우 흡사하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이날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EBS 연계율은 50.0%다.

입시업체도 수학 영역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낮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학의 문제 배

열이 예년과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공통과목 객관식 마지막 문항 15번과 주관식 마지막 문항의 출제 파트가 바뀌면서 낮은 문항 배치로 수험생 체감 난도가 높았을 수 있다"고 봤다.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제된 한편, 다양한 유형에서 골고루 출제돼 전체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소위 '킬러문항'의 요소도 배제됐다고 분석했다. 교사단은 "문제풀이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공교육을 통해 지문을 충실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수험생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문항에서 매력적인 오답 선택지와 참신한 정답 배치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어영역은 EBS 수능 연계교재와 53.3%(24문항)가 연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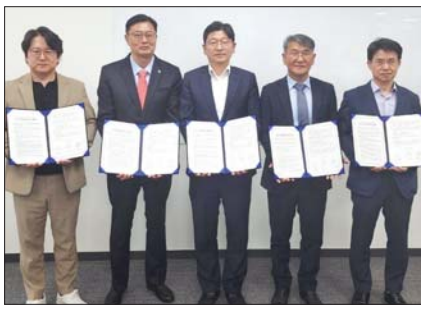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추진

인허가 공사장 2곳과 3자 업무협약
내달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에 도입
연면적 5000㎡ 또는 16층 이상 대상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일 시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협약식. /서울시

이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내달부터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그 대상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 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송실대,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 선정

2029년까지 총 55억 지원 받아

송실대학교(총장 장범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제조·문화·교육·의료 등 타 산업의 혁신을 가속할 혁신 플랫폼이자 디지털 시대 대표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송실대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총 55억원을 지원받아 매년 20명

이상의 석박사 과정을 양성하게 된다.

글로벌미디어학부 김동호 교수를 책임자로 해, 미디어 및 AI 전공 교수 11명이 교내에서 참여한 송실대 사업단은 기술·인문·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메타버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김동호 교수는 "2000년 본교 글로벌미디어학부의 설립 때부터 진행해온 기술·인문·디자인이 융합된 교육에 대한 연구가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메타버스의 특성에 맞춘 인재양성과, 교내외 인문사회 분야까지 아우르는 연구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용인시 中企, 태국서 40억 상당 수출상담

방콕 국제식품 전시회 참여

용인특례시는 관내 중기 6사가 지난 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태국 방콕 IM PACT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린 '태국 방콕 국제식품 전시회(Thaifex Anuga Asia 2024)'에서 40억원 상당의 수출 상담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태국 방콕 국제식품전시회'는 아시아 최대의 B2B(기업 대 기업) 식품 전시회로, 올해는 52개국에서 각종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식품 제조기업 3130여

사가 참가했다. 용인특례시 단체관에선 과일소주 제조기업 '(주)소원컴퍼니', 전통주 제조기업 '농업회사법인 술샘', 전통떡 제조업체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 참기름·들기름 제조업체 '브로스라팜', 식·음료 제조기업 '우신상사 주식회사', 산양삼 가공식품 제조기업 '다운' 등 6사가 참가했다.

참가한 기업들은 세계 각국 바이어와 총 181건에 걸쳐 40억 상당의 수출 상담을 했다.

시는 이번 참여기업의 해외시장 개



지난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태국 방콕 국제식품 전시회'에 마련된 용인특례시 중기 단체관. /용인시

척을 돕기 위해 부스 임차비, 장치비 운송료 등을 지원하고 미리 현지 바이어 등을 사전에 발굴해 연결 시켜주는 등 용인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용인(경기)유진특 기자 yujin@

서울청년 112명에 지역 상생 창업활동 지원

서울시, '넥스트로컬 6기' 발대식

통영에서 버려지는 굴패각을 활용한 친환경 시설제부터 김해지역 쌀을 이용한 탁주, 영월지역 할머니들과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약과까지. 전국 곳곳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서울청년 112명이 기지개를 켜다.

서울시는 4일 오후 3시 DDP 3층 다자인홀에서 '넥스트로컬 6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서울시의 지역상생 청

년창업 지원사업이다. 선발된 만 19~39세 청년 창업가는 시와 연계된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 활동을 펼치게 된다. 현재 시와 연계된 지역은 (강원)강릉·횡성·영월·양구·인제, (충북)제천·괴산·단양, (충남)홍성·서천, (전북)익산, (전남)목포·강진·장흥·해남, (경북)영주·상주, (경남)통영·함양 총 19개다. /김현정 기자

대구시, 수족구병 환자 한 달 새 2배 늘어

영유아 중심 발생... 위생수칙 준수해야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감시결과, 대구시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한 달 사이 2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적 증상인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4급 감염병)으로 환자의 침, 가래, 콧물 등을 통한 비말 감염, 피부의 물집에 직접 접촉해 감염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만진 오염된 물건을 만져서 전염되는 경우도 많아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에 걸리면 처음 2~3일 동안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등으로 시작해 증상이 심해지고, 발열 후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 등

통증성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대부분 7~10일 이후 치유되는데, 증상 발생 후 1주일 동안은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김신우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경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기저귀 뒤처리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을 씻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등에서는 장난감, 문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는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발생정보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독관리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족구병 확산 방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